

김리아갤러리, 구자현 개인전 '無題(무제)' 개최

문화뉴스 백현석 기자 | 2025. 8. 18. 11:50

김리아갤러리에서 9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구자현 개인전 無題 (Untitled)가 열린다.



구자현 개인전 無題 (Untitled) 전시 알림 포스터

이번 전시는 40여 년간 평면성과 물성을 집요하게 탐구해온 작가의 오랜 궤적과 치열한 공정 끝에 도달한 미감의 완성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자리다.

대표적인 평면 회화 작품과 더불어, 스크린 프린트, 목판화 등 다양한 프린트메이킹 작업을 통해 바탕과 행위, 물성과 시간의 접점에서 태어난 화면들을 소개한다.

구자현의 작업은 철저히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오랜 시간 수없이 겹쳐 바른 바탕은 그 자체로 응축된 시간의 밀도이며, 작가가 신중히 선택한 재료와 고집스럽게 지켜온 전통적 공정 방식은 화면 위에 보이지 않는 구조와 힘을 부여한다.

그는 화면의 9할 이상이 바탕에서 결정된다고 믿는다. 캔버스를 만드는 일부터 먹을 고르고 내광성 실험을 거치는 과정까지, 그의 작업은 '구증구포(九蒸九曝)'의 정제 과정처럼 정직하고 집요하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회화 전시를 넘어, 프랑스 하이 주얼리 브랜드 레포시(REPOSSI)와의 특별 협업을 통해 조형성과 장인정신이 교차하는 감각적인 공간을 제안한다.

레포시는 이탈리아 건축가 출신 아트디렉터 가이아 레포시(Gaia Repossi)가 이끄는 LVMH 산하 브랜드로, 조형적 실험과 구조미를 바탕으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구축해왔다.

김리아갤러리는 키아프·프리즈 서울이 열리는 동시대 예술 주간을 맞아, 9월 3일부터 6일까지 구자현의 회화 작품과 레포시 주얼리 컬렉션을 함께 선보인다. 구자현은 레포시의 컬렉션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신작 4점, '레포시 에디션'을 제작했다.

이 중 한 점은 레포시가 소장해 향후 전 세계 주요 매장과 공간에서 소개되며, 구자현의 예술 세계가 글로벌 무대에 새롭게 펼쳐질 예정이다.

[출처: 문화뉴스]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732>